

30 화목, 하나님의 부탁

hapter

골 1:21~22, 고후 5:17~21

은혜찬송 189장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됐네), 찬양 71장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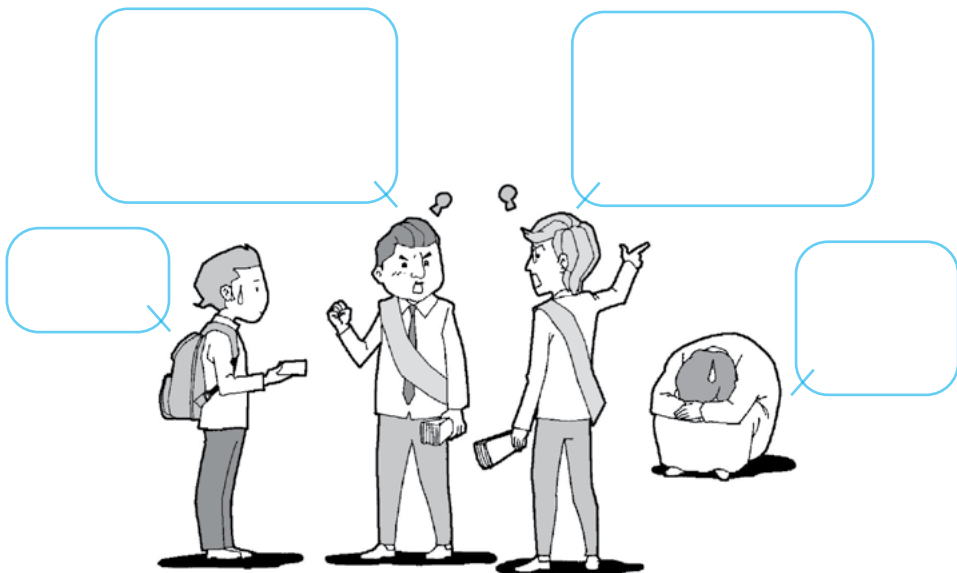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을 압니다.
2.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야 함을 압니다.
3. 잃어진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압니다.

마음 열기



1. 두 형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요?

2. 두 형제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요?

3.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고 직접 말 풍선을 채워 보세요.



말씀을 이해하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그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처리하여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룬 우리는 아직 잃어진 상태에 있는 주위의 영혼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사하셔서 화목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 화평한 방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 간에도 많은 언쟁과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누리는 잠시의 평화도 수많은 사람이 흘린 피로써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더붙어 화목케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싸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다른 사소한 일에서의 다툼과 분쟁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상대를 이해할 뿐 아니라, 양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후 5:18)

Now all things are of God, who has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Jesus Christ, and has given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2 Co 5:18)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롬 5:6~11)

(엡 2:11~18)

(마 5:23~26)

2. 화평의 반대는 다툼입니다. 잠언에서 ‘다툼’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장, 절을 적은 후 왜 다툼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적어 보도록 합시다.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요한일서 4장 9~10절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21절에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는 () 것이고 (16절),
둘째는 우리도 () 것이며 (19절),
셋째는 우리의 () 하는 것 (20~21절) 입니다.

이 세 가지 반응 중에서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해 봅시다.

2.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내가 화해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기록해 봅시다.

3. 화평을 깨고 다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언어생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생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제해 보고 적어 봅시다. 그리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대사)으로서 '화해의 직분'을 담당했음을 알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이란



구원받은 그 순간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너무도 기뻐 울거나 즐거워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가득했지만 기쁨의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습다. 덤덤한 제 표정을 보신 엄마가 오히려 답답해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비록 그 순간은 담담했지만 분명 영혼은 소리쳐 기뻐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내 영혼은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살찌우게 되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더욱 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어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 35:9)

화평케 하는 자의 자기 통제



알렉산더 바쉐는 어떤 중요한 실험을 위해 수년 간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어느 날, 그는 바로 실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도구들을 탁자 위에 잘 배열해 놓고는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어머니가 연구실에 들렀다가 치마로 실험 도구를 건드려 모든 도구들을 박살 내고 말았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바쉐는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는 잠시 정신을 잃는 듯 잠자코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겠다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5분 후, 바쉐는 다시 유쾌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페어맨 로저스에게 ‘나는 5분 동안은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지요’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는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음을 보여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으로, 감정의 폭발에 좌우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러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주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인내하고 포용하는 생애를 지내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의로운 분노로 죄많은 인간들을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셨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화내고 있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대로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성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성을 내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원망과 증오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 3:17~18)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